SAEGAERO EDUCATION

Stage 10 Cornflake Coin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오마와 케리는 보물 찾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 해요. 이들이 발견한 로마 주화가 시리얼 상자에서 나온 걸 알자 둘은 낙담해요. 운이 좋게도 오마와 케리는 진짜 로마 주화를 발견하고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Talking Points (대화 포인트)	- 앞표지를 보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지 대화해 보세요. - 아이를 3장(7쪽)의 도입부에서 멈추라 하세요. 이 장의 제목을 참고할 때, 케리의 동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나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13쪽부터 15쪽까지 함께 읽으세요. 매트의 찻잔을 이기려면 케리와 오마가 어떤 보물을 찾아야 할지 대화해 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로마 주화의 사진을 찾아 보세요. 지금의 동전과 어떻게 다른지 대화해 보세요. - 로마 제국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고대 로마의 유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서 로마 주화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발견 "이것 좀 봐!" 케리가 외쳤어요. 케리는 길게 자란 잔디밭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어요. "뭔데?" 오마가 물었어요. 점심 시간이었고, 케리와 오마는 학교 잔디밭에 나와 있었어요.
p4	케리가 동그랗고 빛나는 물건을 들어 보였어요. 햇빛에 그 물건이 반짝였어요. "동전이야! 정말 낡아 보여." 케리가 말했어요. "하트 선생님께 가져가자." 오마가 말했어요. "그럼 대회에 제출해 주실 거야. 혹시 모르지, 우승할 수도 있어."
p5	지역 신문에서는 근처 학교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었어요. 가장 오래되고 굉장한 보물을 찾는 학생은 스페이스 펀 파크 입장권 두 장을 받았어요. "어디서든 땅 속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보물 사냥꾼을 찾습니다! 어디서든 땅 속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굉장한 보물을 발견하는 학생을 찾는 대회를 엽니다. 행운의 우승자에게는 스페이스 펀 파크에 두 명이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p6	"그 동전 한 번 보자." 오마가 말했어요. 오마는 손에 동전을 놓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어요. "와! 정말로 오래돼 보여!" 오마가 말했어요. 오마는 신나서 뛰어다니고 있는 케리에게 동전을 돌려줬어요. "이건 진짜 보물 동전이야." 케리가 활짝 웃었어요. "가자! 하트 선생님께 지금 당장 보여드리는 거야." 케리가 외쳤어요.
p7	2. 진짜일까? 하트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케리와 오마가 교실로 갑자기 뛰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니?" 하트 선생님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방금 잔디밭에서 이걸 찾았어요!" 케리가 헉헉거렸어요. "보물 찾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케리는 반짝이는 동전을 하트 선생님의 책상에 떨어뜨렸어요.
p8	하트 선생님은 동전을 문질렀어요. 그리고는 동전에 써 있는 글자를 읽었어요. 케리와 오마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동전의 가장자리를 보니, '펀 스타트'라고 써 있구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케리와 오마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까, '펀 스타트' 시리얼 말씀이세요?" 케리가 물었어요.
p9	하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케리야. 이 동전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복제품이야. 시리얼 상자에서 나온 무료 사은품이란다. 정말 안됐구나." 케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트 선생님이 케리의 얼굴을 보았어요.

	"기운 내렴, 케리야. 대회가 마감하기 전에 진짜 보물을 찾을 시간은 충분하단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p10	케리와 오마는 교실을 가로질러 돌아갔어요. 나가려던 참에 두 사람의 뒤에 누군가의 인기척을 들었어요. 바로 매트 쏜이었어요. 항상 심술궂은 말만 하는 아이였지요. 매트는 케리를 비웃고 있었어요.
p11	3. 시리얼 비웃기 다음날 반 아이들 모두가 케리의 시리얼 곽 동전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매트 쏜이 모두에게 퍼뜨린 것이었어요. "케리가 보물 찾기 대회에 콘플레이크 동전으로 참가하려 했대!" 매트가 히죽 웃었어요. 아이들 모두 웃었지만, 매트의 웃음 소리가 가장 컸어요. "그만하면 됐다, 매트." 하트 선생님이 말했어요.
p12	"매트를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마가 귓속말을 했지만, 케리의 얼굴은 붉어졌어요. 케리는 매트에게 화가 났고 케리 자신에게도 짜증이 났어요. 어떻게 멍청하게도 그 동전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p13	며칠 동안 아이들은 모두 보물 찾기 대회에 대해 쉴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집안이나 정원에서 찾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카라는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들을 가져왔고, 벤은 오래된 유리병을 파내 왔으며, 재스는 초록색 표지의 낡은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p14	그리고 매트 쏜은 모두에게 청백자 찻잔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의 찬장에서 꺼내 온 것이었어요. 하트 선생님은 찻잔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주 오래된 물건이구나, 매트. 잘하면 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어." 선생님이 말했어요. 매트는 자랑스러운 듯 킥킥 웃었어요.
p15	케리는 매트를 노려봤어요. 매트를 우승하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케리는 서둘러 학교를 나섰어요. "뭐 하는 거야?" 오마가 케리를 따라잡으려 애쓰며 물었어요. "매트의 찻잔보다 더 오래된 물건을 찾아야 해." 케리가 말했어요.
p16	집에 돌아가서, 케리는 엄마에게 공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케리와 오마는 의자 밑, 덤불 속, 울타리 옆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반 토막 난 연필과 낡은 축구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케리는 엄마에게 수로 옆까지 내려가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너희 둘이 뭘 하는 거니?" 케리의 엄마가 물었어요.
p17	"아무것도 아니에요." 케리가 말했어요. 수로 옆에서 케리와 오마는 다리 밑과 길가를 살펴봤어요. 망가진 인형과 빈 사탕 껍질 여섯 개를 발견했어요. 삼십 분 뒤, 둘은 지치고 싫증이 났어요.

	"집에 가자." 오마가 말했어요. 케리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멍청한 대회 같은 건 잊어버리자." 케리가 말했어요.
p18	4. 바커가 금화를 파 내다 주말에 케리와 오마는 케리의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소풍을 갔어요. 케리는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가 물었어요. 케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p19	"바커가 구덩이를 더 파기 전에 산책을 시키러 가야겠다." 아빠가 말했어요. "너희 둘도 함께 갈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케리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아빠가 말했어요. "새로 카페를 짓는다는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보자." 케리가 툴툴거렸어요. 케리는 일어서서 바커의 목줄을 잡았어요.
p20	10분 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땅에는 카페가 지어질 커다란 진흙 구덩이가 파져 있었어요. 아빠는 나무 밑에 세워진 노란색 굴착기를 보러 갔어요. 바커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더니 케리한테서 벗어나려 했어요.
p21	케리는 바커의 목줄을 떨어뜨렸어요. 순식간에 바커는 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바커가 진짜 보물을 찾을 지도 몰라!" 케리가 외쳤어요. "분명 그냥 오래된 뼈다귀일거야." 오마가 말했어요. "바커는 항상 뭔가를 파내잖아."
p22	바커는 땅을 계속해서 뒤졌고 나뭇가지 잔해를 조금 파냈어요. 그러더니 케리에게 총총 다가왔어요. 바커의 입 안에 무언가 물려 있었어요. 케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들뜬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렇지." 케리가 투덜거렸어요. "또 그 멍청한 콘플레이크 동전이잖아." "그래도 가지고 있자." 오마가 말했어요.
p23	"가지려면 너나 가져." 케리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오마에게 동전을 건네줬어요. "콘플레이크 동전은 이제 지겨워." 그 때, 케리의 아빠가 둘을 불렀어요. 이제 갈 시간이었어요. 오마는 주머니에 동전을 넣었어요. 케리는 바커의 목줄을 잡았고 모두들 언덕을 다시 내려갔어요.
p24	5. 우승자는..... 금요일에 하트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찾은 보물들을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커다란 골판지 상자 안에 넣었어요. "대회는 내일이 마감이란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방과 후에 신문사에 가져다 줄 거야. 더 낼 사람이 있니?"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p25	그때 오마는 뒷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만져졌어요. 바커가 찾았던 그 동전이었어요. "케리의 개가 찾은 거에요." 오마가 하트 선생님에게 동전을 주며 말했어요. "또 그 콘플레이크 동전이잖아!" 매트 쏜이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걸 왜 꺼낸 거야?" 케리가 화가 나서 소리 죽여 말했어요.
p26	며칠 뒤, 학교 전체가 강당에 모였어요. 키가 큰 여자가 일어섰어요. "제 이름은 클레어 펜튼입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지역 신문의 편집장이에요. 아주 기쁘게도, 여러분 학교 학생 중 누군가가 보물 찾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p27	강당에 들뜬 분위기가 퍼져나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매트 쏜을 쳐다봤어요. 다들 매트의 찻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매트는 입이 찢어져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상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p28	"우승자는....." 편집장이 말했어요. "케리 로빈슨입니다! 케리는 진짜 로마 시대 주화를 찾았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나더니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케리는 충격을 받아 일어섰어요. 케리는 오마의 팔꿈치를 잡았어요. "너도 같이 가자." 케리가 말했어요. 박수를 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매트 쏜밖에 없었어요.
p29	"참 잘했다!" 편집장이 밝게 웃었어요. "이번 주 신문의 1면에 네가 실릴 거야!" 편집장은 케리에게 스페이스 펀 파크의 입장권을 건네주고 미소 지었어요. "하트 선생님이 네 개, 바커가 동전을 찾았다 하시더구나."
p30	"바커가 찾았어요." 케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마도 도왔어요. 제가 동전을 버리려는 걸 막아줬어요. 전 그게 콘플레이크 동전인 줄 알았거든요." "음, 바커가 동전이 뭔지 알아봐서 다행이구나." 편집장이 웃었어요. "바커와 오마도 1면에 실어야겠는데, 어떻니?"
p31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모두 케리와 오마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어요. 매트 쏜은 뒤에서 걸어오면서 먹구름이 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트 선생님이 케리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바커가 진짜를 파 냈구나." "맞아요." 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커가 보물 동전이랑 콘플레이크 동전의 차이를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케리가 오마를 쳐다보자 둘은 함께 씩 웃었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어렸을 때 나는 시리얼 상자 안에서 반짝이는 금색 동전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신이 났는데, 그 동전이 진짜 로마 주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복제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금방 털어버렸고 나중에는 그 시리얼 시리즈에 들어있는 동전을 전부 모았어요. 나는 런던 북부에 살아요. 나는 동화를 쓰지만, 기타를 치거나 두 어린 아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언젠가 아스날 축구 팀에서 뛰는 게 꿈이에요.